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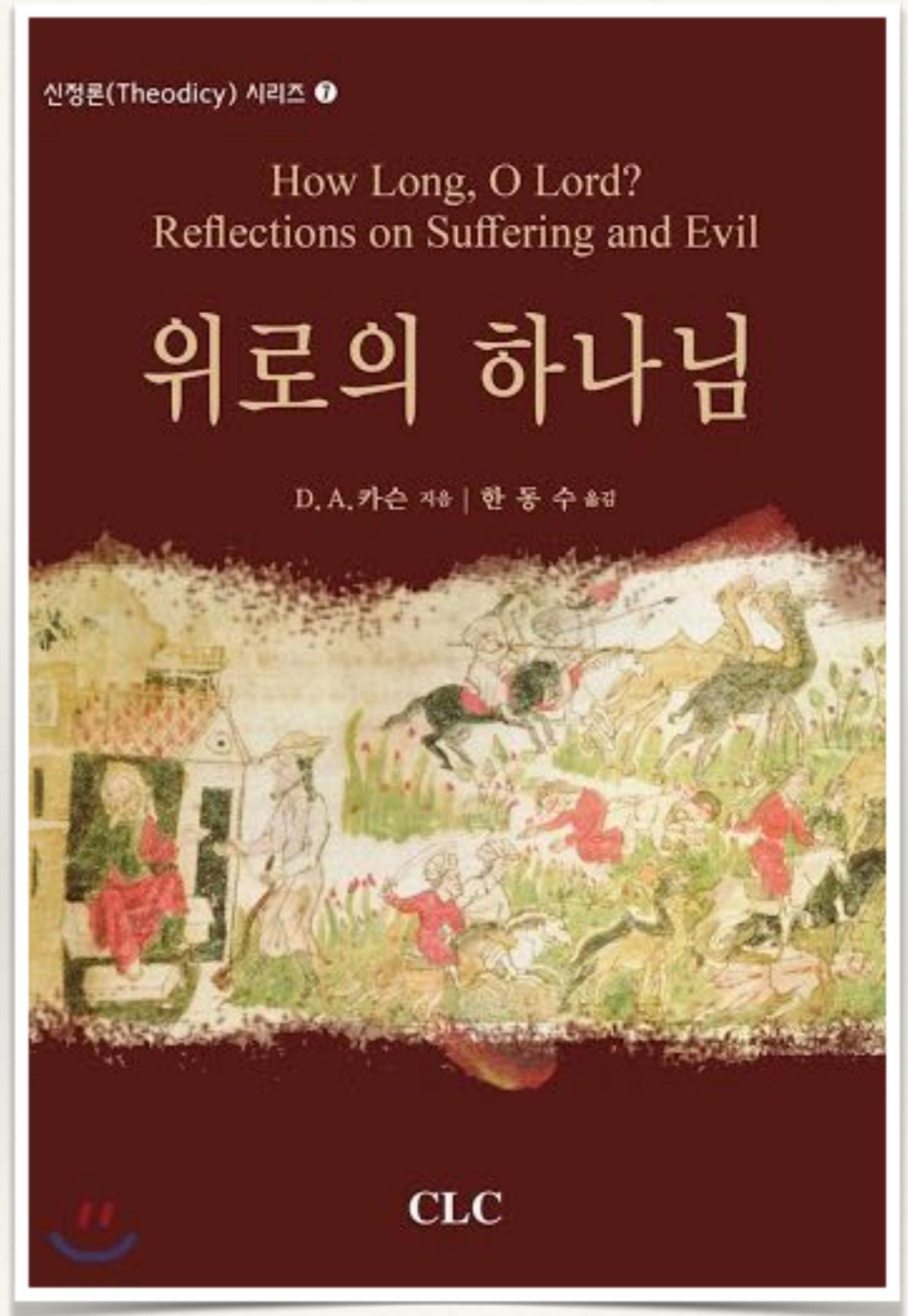
2020년 1학기  
연세대학교회  
주일성서연구

정대경 목시  
(명지대학교 교목)

성서연구의 주제

# 악과 고통의 문제

- ❖ "죄의 대가"
- ❖ "사회적인 악과 가난"
- ❖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 ❖ "저주와 거룩한 전쟁"
- ❖ "질병, 죽음, 사별"
- ❖ "종말론과 고난"
- ❖ "옘: 신비와 믿음"
- ❖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
- ❖ "하나님 섭리의 신비와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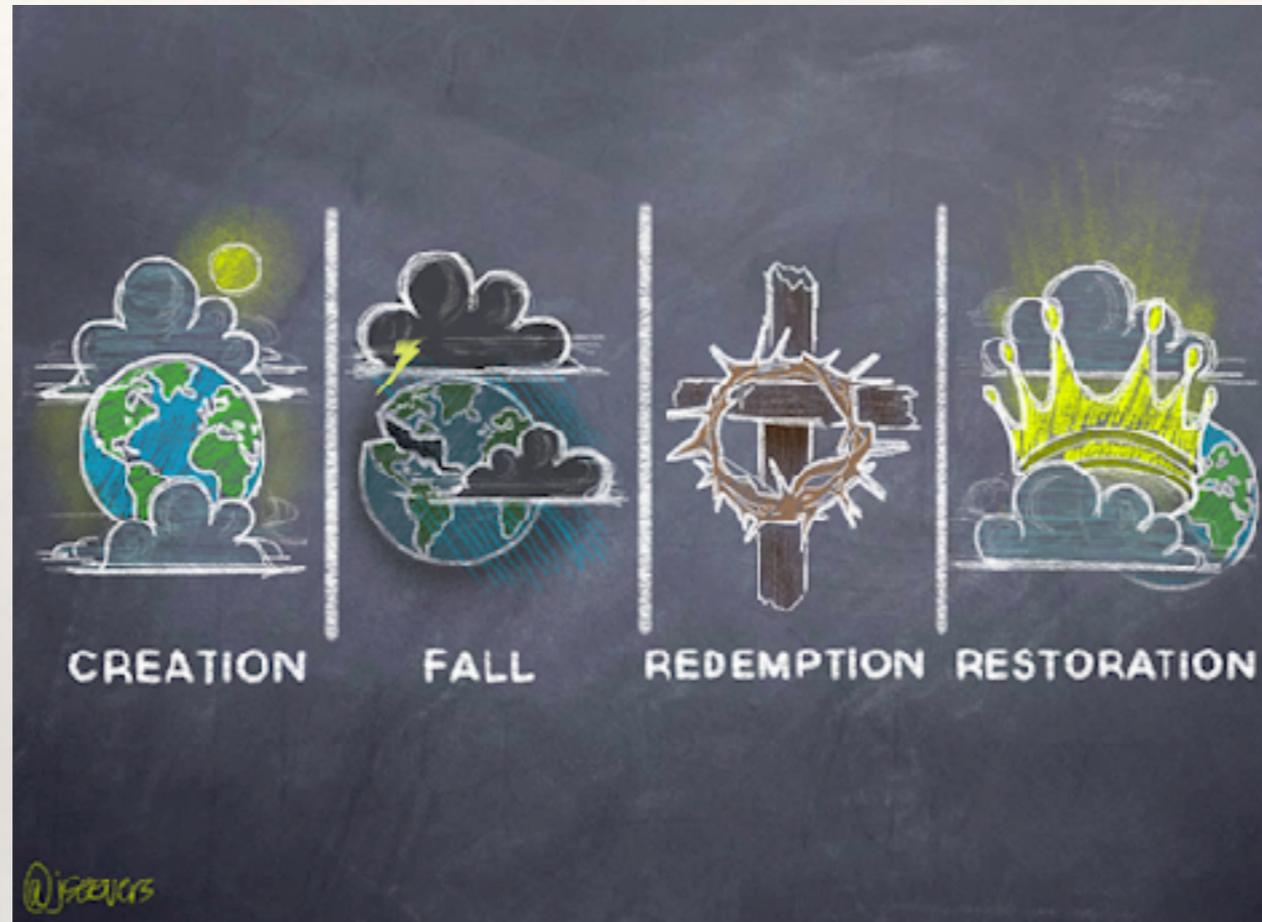
4주차 주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연단”

1. 연단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2. 연단 그 자체는 고통스럽다
3. 연단에는 유익이 있다
4. 연단에는 끝이 있다



#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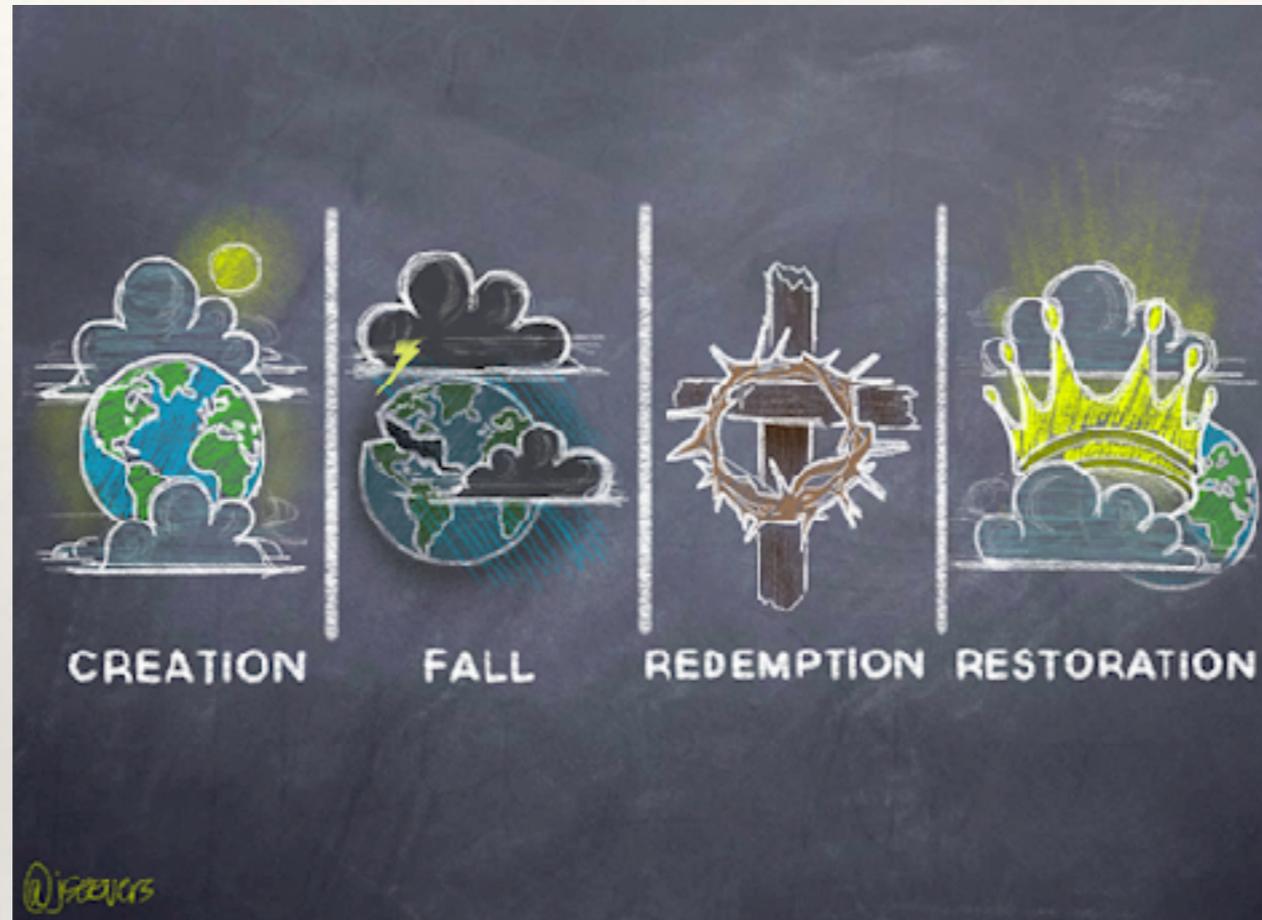


이미지 출처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november/big-story-of-scripture-creation-fall-redemption.html>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

- 앞으로 볼 주제들은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
- 고통의 문제는 성서의 전체 그림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
-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점

# 들어가며



이미지 출처  
Christianity Today,  
<https://www.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november/big-story-of-scripture-creation-fall-redemption.html>

“...하나님께서서 어떤 경우에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비상한 방식으로 간섭하지 않으신다...다만,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악과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뿐이다.” 카슨, 104.

## 들어가며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이,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빠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12:5-12

# 1. 연단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젓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니다. 그 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전 3:1-2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욥 2:9-10

-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연단
- 신앙의 성숙과 연단
- 믿음에 대한 성찰

## 2. 연단 그 자체는 고통스럽다

---

<https://www.youtube.com/watch?v=yFt-i-LTXpo>

## 2. 연단 그 자체는 고통스럽다

---

### - 고통은 분명한 “악”이다

“육체의 가시...사탄의 사자” 고후 12:7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히 12:11

### -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과 항변의 기도

“살려 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 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헐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합 1:2-4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주님께서서는 눈이 밝으시므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합 1:6, 13

## 3. 연단에는 유익이 있다

### - 기록해지는 유익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자기의 기록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히 12:4

“...기록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기록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히 12:14

### - 인내, 기도의 훈련, 긍휼히 여기는 마음, 겸손함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지속되는 고난은 분명히 ‘선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인내를 낳을 수 있고, 기도의 훈련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며,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묵상과 자각을 통해 성급한 교만함과 자만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카슨, 109.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롬 5:3-4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 5:7-9

## 4. 연단에는 끝이 있다

---

### -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이 악이라고 부르는 사건과 환경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카슨, 108-9.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쌀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시 6:6-10)

### -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함으로서의 신앙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합 3:2

## 4. 연단에는 끝이 있다

---

### - 종말론적 희망으로서의 신앙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합 3:17-18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빌 3: 10-11

## 4주차 성서연구를 나가며

---

### 목상을 위한 질문과 나눔

-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누어 봅시다.
- 악함을 선하심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묵상해봅시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시다.

## 윌리엄 쿠퍼의 시

---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울부짖을 때  
한 빛이 그를 놀라게 하네.

주께서 일어나사  
치유의 날개를 펴시네  
하늘로부터 위로를 부으시니  
그 영혼에 다시  
비온 뒤 밝게 빛나는  
시절을 주신다.

비록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들판에 모든 곡식이 시들고,  
우리에 양떼가 가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니  
내 목소리가 그를 찬송하리라.  
이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네